

학부(과)	물류학과	학번	2020	성명	김 00
제목	AI로 배우고, 나로 완성하다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저는 저번 학기 까지만 해도 AI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존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산 작업에서도 종종 오류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며, AI의 실질적인 학습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접어들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정 과목의 난이도와 내용으로 인해 막막함을 느꼈고, 모든 시간을 한 과목에 쏟기에는 다른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I를 활용하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았습니다.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AI를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이 에세이를 작성하게 된 동기, 결과부터 말하자면 놀라웠습니다. 전 과목 A+, 즉 평균 4.5라는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AI의 강점인 시간 절약 덕분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체험하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관리 방법, 적용 사례 등)


이번 학기에 특히 큰 도움을 받은 과목은 E-로지스틱스였습니다. 해당 과목은 기말고사 범위와 유형이 명확하지 않았고, 기출문제도 없었으며, 동기들조차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모든 내용을 이미 설명했다고 주장하셨지만, 수업 내용이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아 학습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강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수업마다 교수님의 음성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인 클로바 노트를 활용하여 강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녹음 내용만으로는 감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ChatGPT를 활용하여 교수님의 설명 방식을 모방하도록 설정한 "AI 교수님"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녹음된 내용들, 그리고 수업 때 실습한 모델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강의하셨는지를 GPT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 문제를 생성하게 하였고, 그 문제들을 풀어보며 점진적으로 학습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각각의 주제별로 총 20 문제를 제공한 ChatGPT>

수업에서 다룬 모델과 용어들 중 교수님께 질문을 해도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나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GPT와 함께 퍼플렉시티(Perplexity)라는 AI를 활용해 교차 검증하면서 학습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각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공하여 신뢰도를 높였고, 이를 통해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상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며 응용 능력을 키웠고,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준비했던 응용문제와 유사한 유형이 출제되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ueue length 가 뭐까

ExtendSim에서 "Queue Length(대기열 길이)"는 특정 순간에 대기열에 있는 엔티티(작업, 상품, 사람 등)의 수를 나타냅니다. 즉, 해당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Queue Block에 들어온 엔티티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통계 값 설명**

이미지에서 나타난 통계 값들:

- Ave Length (평균 길이):**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대기열에 평균적으로 존재했던 엔티티의 수입니다.
- Max Length (최대 길이):** 대기열에 쌓였던 엔티티의 최대 개수입니다.
- Ave Wait (평균 대기 시간):** 엔티티가 대기열에서 대기한 평균 시간입니다.
- Max Wait (최대 대기 시간):** 대기열에서의 최대 대기 시간입니다.
- Arrivals / Departures:** 대기열로 들어온 엔티티와 빠져나간 엔티티의 수를 보여줍니다.

**답변**

ExtendSim에서 queue length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Queue Length의 의미**

Queue length는 ExtendSim 플랫폼에서 현재 처리 대기 중인 작업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시스템의 부하 상태와 성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요 특징:**

- 작업 대기열:** Queue length는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작업의 수를 의미합니다.
- 시스템 부하 지표:** 높은 queue length는 시스템에 많은 요청이 몰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성능 모니터링:** 관리자는 이 지표를 통해 시스템의 현재 상태와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리소스 관리:** Queue length를 관찰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추가 리소스를 할당하거나 작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tendSim에서 queue length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운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ChatGPT와 Perplexity AI를 활용한 크로스체크 >

## ○ 학습법을 통한 능력 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AI 활용 이전의 저는 과목별 학습 시간 분배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정 과목에 과도하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결과, 성적이 들쭉날쭉해지

는 문제를 겪었고, 이는 학습 전반에 대한 동기 저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과목별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I는 학습 초기에 각 과목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기 중심의 과목과 이해 중심의 과목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암기 과목에서는 반복 학습을 돕는 AI 퀴즈 생성 도구를 활용했고, 이해 중심 과목에서는 복잡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AI 도구를 사용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부 시간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과목의 학습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AI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창의적 접근 방식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AI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문제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GPT로부터 얻은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AI 활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거의 동일했음에도 성적과 학습 성과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AI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복잡한 정보를 요약해 주는 덕분에, 저는 본질적인 학습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KAU student portal interface. The user is logged in as 김준영 님. The main content area shows the '학기성적조회(Cur. Semester)' page for the year 2024, semester 2.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성적 조회 기간' from 2024.12.11(WED) to 2025.01.31(FRI). The table below lists the courses taken, including course numbers, titles, majors, credits, grades, and evaluation status. A summary table at the bottom provides overall statistics for the semester.

학수코드 (Course Number)	교과목명 (Course Title)	이수구분 (Major)	학점 (Credits)	성적 (Grade)	재수경여부 (Retake)	비고 (Remarks)	강의평가 (Evaluation)	성적관련상담 (결과조회)
GS2814	사회의 인문학(SDU)	교선	3	A+	본수강		완료	
LM4402	E-로지스틱스	전선	3	A+	본수강		완료	
AT4334	교통신용량분석	전선	3	A+	본수강		완료	
AT4498	항공운송캡스톤디자인II	전선	3	A+	본수강		완료	
ST4401	IOT 기반 융합물류기술	전선	3	A+	본수강		완료	

총계	신청학점 (Registered Credits)	취득학점 (Acquired Credits)	평점합 (Total Grades)	평점평균 (GPA)	학기석차 (Semester Ranking)	비고(Remarks)
	15	15	67.5	4.5	/	

## ○ 최종 소감

AI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우리 세대의 학습과 생활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통해 AI가 단순히 학습 속도를 높이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학습 전략과 사고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AI는 사용자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더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누가 더 유용한 답을 이끌어내는가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를 단순히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상호작용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AI를 학습의 메인 도구로 삼지 않고 보조 수단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AI는 창의적인 사고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AI를 활용하며, 직접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주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I가 메인이 된다면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희미해질 위험이 있기에, 이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AI의 놀라운 가능성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학습 능력에도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AI는 점점 더 발전할 것이며,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기회를 누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